장흥 공중목욕탕 건립 2년째 표류

시행사 부도로 공사 중단
11월 완공 계획 차질
군 "입찰 거쳐 10월까지 완공"

시행사의 부도로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현장.

장흥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2년째 표류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총 17억원(군비)을 들여 장평면 용강리 22-7번지에 연면적 499㎡(151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이 시행사 부도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이 공중목욕탕은 오는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건축물 시공은 90%에 가까운 완공 단계에 놓여 있으나 기계설비와 소방, 통신, 전기부문은 60% 공정에 이른 가운데, 시행사인 K건설의 부도사태로 지난 3월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현재 공사가 멈췄다.

그 동안 시행사인 K건설이 집행한 도급액은 총 12억3900만원 가운데 선급금 4억4600만원, 노무비 4억9000만원, 기성금 1억1000만원 등 10억5300만원이 지급됐고 1억8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도난 시행사와 감리사간에 공사중단에 따른 재료비 및 노무비 체불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추후 공사 재발주시 안전점검과 주변정비 등 추가예산 발생에 따라 책임 문제가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장흥군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정부산하 정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제2업체와의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한 입찰 절차를 거쳐 공사를 10월 말 안으로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공중목욕탕은 전남도 특수시책일환으로 2006년부터 운영조례를 통해 시행해온 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가우도 160m 진짜 흔들리는 출렁다리 개통

강진군은 가우도 집중 호우 피해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실제로 출렁이는 출렁다리를 임시 개통했다. 〈강진군 제공〉

기존 출렁다리는 명칭 변경
가우도 모노레일도 내달 개통

강진 가우도 진짜 출렁다리가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출렁다리를 지난 15일부터 개통했다. 폭 1.8m, 높이 15m, 길이 150m로 실제 출렁이는 다리다.

가우도 모노레일(가우도 정상-청자타워)도 다음 달 개통한다.

2013년 준공한 대구면 저두리와 도암면 망호리를 연결한 연륙교인 가우도 출렁다리는 이름과 다르게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명칭 변경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최근 '가우도 출렁다리'의 명칭을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변경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내달 13일까지 '화순군민의 상' 후보 추천 효행 등 4개 분야 공적 개인·단체

화순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화순군민의 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지난 1982년 시작해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화순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 유공 ▲효행 ▲교육·문화·체육 ▲새일꾼상 4개 부문에서 공적이 탁월한 개인·단체에 수여된다.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하고 싶은 후보가 있으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는 현지 확인조사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 여부가 결정된다.

화순군은 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문화예술 창달, 군민 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인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화순군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지역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 본격화

광주 북구 오룡동에 부지 마련
공개입찰 시공사 선정 10월 착공

장성군이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조감도〉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남도 계약심사와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

공사 오는 10월께 착공할 예정이며,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될 곳은 광주 북구 오룡동 일원으로 12만여 명의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이상적이다.

군은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매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 최종 계약을 맺으며 5257㎡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설계 공모 등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정비 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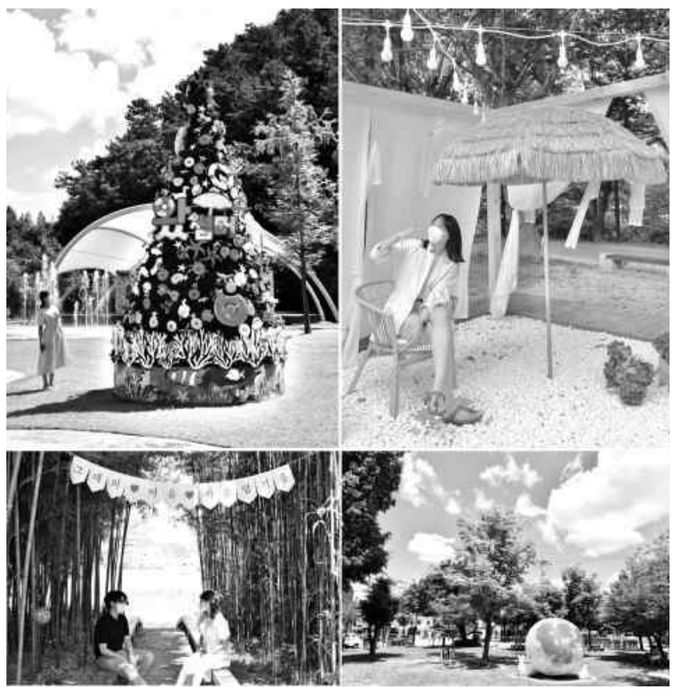
장성먹거리사업단을 통해 출하 농가 693명을 조직화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출하 농가 1000명을 확보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되면 현재 운영 중인 남면 로컬푸드직매장과 함께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장성지역 최초로 개설된 남면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 12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 7기 장성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부자농촌 건설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포토존 4곳 설치…여름 추억 남기세요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기 위해 여름을 주제로 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담양군은 최근 여행의 추세가 소규모로, 휴식과 힐링이 중시되는 형태로 바뀌어감에 따라 담양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객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포토존을 설치했다.

포토존은 4개소〈사진〉에 설치됐으며, 영산강문화공원은 휴양지 느낌의 포토존으로 꾸미고 어린이 프로방스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튜브로 만든 트리, 터널, 쉼터로 조성, 대나무박물관과 중앙공원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여행지에서 특색 있는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려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맘을 사로잡아 담양의 새로운 모습이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1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담양 왔썸머'를 주제로 SNS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는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공식 인스타계정을 태그해 군이 지정한 1개 이상의 해시태그(#담양#왔썸머#담양여행)를 넣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분산을 통한 좀 더 여유로운 관광환경과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지친 마음에 위로와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